

조달청, 20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 기술자문

다음달부터 공사 단계별 관리·工期연장 타당성 검토 등 자문 제공

조달청은 공사관리 경험이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조직·인력 규모의 한계로 2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는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모두 6조8000억원, 162건 사업에 제공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술자문서비스'는 공사추진과 공사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와 수요기관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2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조달청은 기술자문서비스를 통해 수요기관에 공사단계별·업무별 현장관리기법을 전수한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품질·안전관리, 중요 행정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핵심업무인 △설계변경 △물가변동 적용 △공기연장 타당성 검토 △계약상대자 간 이견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현행 맞춤형서비스는 발주기관을 대신해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이지만, 기술자문서비스는 공사관리 업무 중 발주기관에서 어려워하고 기술적·행정적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만 조달청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달청은 최근 3년간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을 반려한 200억원 미만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최소 30건, 약 3000억~6000억원 규모의 기술자문서비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신규서비스인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수요기관 요청 순으로 10건 내외의 사업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18년 이후 본격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발주 경험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은 모두 협의 및 요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현장 기술자문서비스 실시를 통해 공사관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공사 발주기관 및 중소건설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제2매립장 침출수매립 환원정화설비 공사 또 유찰

추정금액 346억원 규모의 제2매립장 조기안정화를 위한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1단계) 설치공사가 또다시 유찰됐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이 공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 마

감 결과 한국종합기술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 공사는 지난달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처음 발주됐으나 한국종합기술 1개 컨소시엄만 PQ에 참여해 유찰됐다.

한상준기자news pia@